

2022년 메리 워드 주간

1585 - 1645



1794 - 1861

테리사 불 아일랜드 수도회 설립 200주년 경축
1821. 8.12 - 2022. 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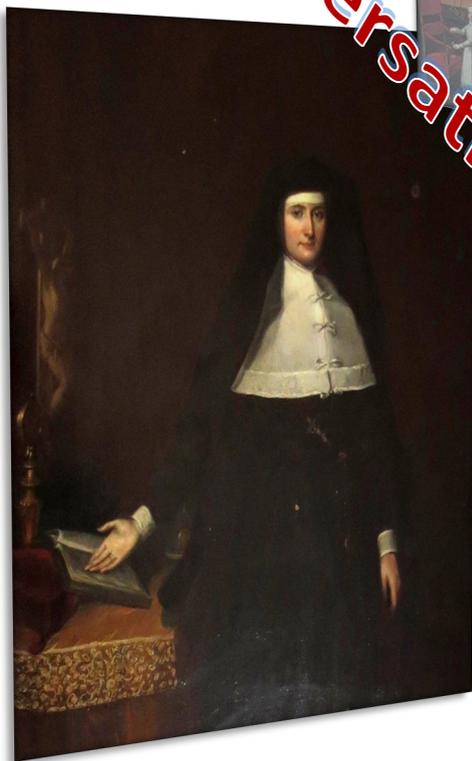
손을 내밀어 그 너머로



Mary Ward

in conversation with

Teresa Ball



머리말

1609년 메리 워드가 수도회를 창립한 이래, 메리 워드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깨달은 이나시오적 부르심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서원 수녀, 협력자, 벗들이 메리 워드의 카리스마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직 맥락에 적용했으며 설립자들도 마찬가지였다.

2022년 테레사 볼의 수도회 설립 200주년을 기해, 로레토 브랜치를 설립한 이 아일랜드 여성을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길 바란다. 이를 염두에 두고, 메리 워드와 테레사 볼과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도록 초대한다. 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났기에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테레사 볼이 메리 워드 수도회를 아일랜드에 처음 설립하고, 이어서 세계 5개 대륙에도 설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

테레사 볼에게 별로 친근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톨릭 교육을 위해 9살 어린아이를 요크 바 컨벤트로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 작가 포리스탈(1994)은, 테레사가 바 컨벤트에 도착했을 당시 그 학교 학생이던 언니 안나 마리아가 맞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공부를 막 끝낸 언니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안나 마리아는 테레사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늘 기억하도록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 테레사는 이 복음 말씀을 항상 간직했으며 남은 생애 동안 그를 유지해준 참으로 특별한 선물이었다.

마찬가지로, 메리 워드가 자신의 성소를 탐색하면서, 글라라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 메리 워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도회 창설 은사인 ‘다른 어떤 것’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말씀과 [수도회 설립200주년을 경축하는 테레사 불의 서원 모토인]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라*.’ 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

다가오는 메리 워드 기도 주간에 대한 배경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서 묘사하는 상상을 이용한 관상 기도 방식을 제안한다. 기도 요점으로 열린 원(유화생애 22)을 장소로 구성하고, 성령께서 메리 워드와 테레사 불과 이 시대의 동료인 여러분 자신이 함께 앉아 있는 열린 원을 이끄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 어떤 대화가 전개되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메리 워드와 테레사 불의 말씀을 날마다 한 가지씩 선정했다. 이 말씀은 기도 주간의 역동성과 일치한다 - **손을 내밀어 그 너머로** -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시대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말씀은 메리 워드의 단일 수도 가족을 향한 여정에 있는 우리를 고무해 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2022년은 단순히 테레사 불의 수도회 설립 200주년 경축만이 아니라 수도회 두 브랜치의 단일화를 향한 중대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Sr Marion Bettenworth CJ - 영국 관구
Sr Jen Bromham IBVM - 영국 관구
Sr Anne O'Dwyer IBVM - 아일랜드 관구



첫째 날: 2022년 1월 23일

주제: 여정의 시작 - 부르심



‘...하느님께 대한 더 큰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정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Mary Ward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Teresa Ball

메리 워드는 1585년 영국 요크셔 지방의 영국 국교를 기피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야만 했다. 메리는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서 자신을 수도생활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고, 하느님께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는지 내면의 많은 의혹을 여러 해 동안 체험했다. 메리는, 때가 이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성소임을 깨달았으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었다.

이 새로운 길은 자유, 정의, 성실의 덕성 -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탁월한 자유’가 특징을 이루었다. 이 창설은 시대에 적합한 사도직, 즉 소녀와 여성 교육, 가톨릭 신앙을 위한 활동 - 시대에 적합한 모든 것에 대한 개방으로 수녀들을 이끌어 갔다. 메리의 큰 관심은 회원들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며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미션은 오늘날 전 세계 수도회에서 지속되고 있다 .

테레사 불은 1794년 더블린에 있는 한 비단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가톨릭 교육을 받기 위해 바컨벳트로 갔다. 200년 전에 테레사가 요크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옴으로써 아일랜드는 수세기 동안 겪은 가톨릭에 대한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가톨릭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상 메리 워드와 테레사 불의 삶은 비슷하다. 신앙과 위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배를 타고 깊은 곳 - 메리는 생토메르로, 테레사 불은 요크 - 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소녀 교육과 신앙의 보살핌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차렸다. 테레사는 우선 아일랜드에서, 그리곤 전세계에서 이 중요한 임무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테레사 불과 메리 워드의 동료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경계를 넘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각자 받은 재능에 감사하며 변화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도 봉사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는가?

Sr Philomena Dowd IBVM & Siobhan Murphy – 아일랜드 관구

둘째 날: 2022년 1월 24일

주제: 내적 투쟁-앞으로 나아갈 길을 식별하기



‘내적으로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Mary Ward

‘하느님은 빛을 사랑하십니다. 적은 어둠이고, 영혼을 괴롭히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Teresa Ball

수도회 입회 결정이나 우리 삶의 방향 전환 등 우리는 모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에 이르는 길은 하나의 긴 여정이 될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결정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가도록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길을 따라 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인도했는지, 어디서 우리가 우회했는지 알 수 있다. 메리 워드와 테레사 볼 또한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자유와 평화를 주는 곳에 이르기 위해 이나시오적 식별을 사용했다.

우리는 삶의 큰 결정 외에도 일상 생활 중의 작은 결정에 수 없이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돕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나(카타리나 마리아)는 정신과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각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별 환자의 요구 외에도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결정이 다른 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나탈리에)는 본당에서 일하면서 종종 본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모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결정이 신앙에 근거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 많은 음성 중에 나는 어디서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식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냐시오의 해 메시지에서 식별이 처음부터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신다. '그것은 항해하는 것, 우여곡절이 많은 길을 가다가 항상 주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도록 해주는 나침반'이라고 하신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 교황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그런 표지판을 찾게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메리 워드와 테레사 볼은 그들의 삶 너머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비전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행동 방향이 아닐 경우 우리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믿는다.

일상 생활에서 나는 어디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수많은 소리 중에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결정을 향해 가면서 나는 어디서 다른 사람들을 표지판으로 경험하는가?

Sr Katharina Maria Bald CJ, Sr Nathalie Korf CJ
독일 중유럽 관구

셋째 날: 2022년 1월 25일

주제: 여정을 위한 이정표



‘수도회의 번영과 발전과 안전은...모든 힘과 빛과 보호의 원천이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데 있습니다.’

Mary Ward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잠잠해야 합니다.’

Teresa Ball

‘수도회의 번영과 발전과 안전은 부귀나 명예나 군주들의 호의에 있지 않으며, 전 회원이 모든 힘과 빛과 보호의 원천이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데 달려 있다.’ 고 한 메리 워드의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 모두, 특별히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모든 의미에서 투옥된 이들에게 그렇게 들린다.

멜버른 청소년 보호 센터 원목인 나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할 성탄 연극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약 10명 정도 참석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상을 나누어 주었다. 천사의 날개, 마리아와 요셉의 의상, 목동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는 팔이 빠진 인형을 찾아냈다. 소년들은 신나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마리아로 분장한 소년은 외팔 인형을

안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인형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거기에서 웃음, 행복, 안정, 진전을 발견했다. 나는 거기서 빛과 힘과 보호를 느꼈으며, 그들의 감방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날 우리는 여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안내하며 서로에게 이정표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신 하느님께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속삭임은 창조주와 창조물,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사람 간의 교환이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느라 바쁘신 하느님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옵션과 선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정표는 생명을 주는 것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 받았다.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려면 마음이 잠잠해야 합니다'. (Teresa Ball)

이정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길이다. 때로는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여정의 길잡이다. 메리 워드는 우리 빛의 근원으로 하느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잊혀진 이들과 복음을 살고 나누기 위해 이정표를 볼 필요가 있다.

메리 워드의 동료인 우리는 이런 힘과 빛과 보호, 즉 참으로 기쁜 소식을 모든 창조물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Jwan Kada IBVM novitiate, Frances Tilly - 메리 워드 벗 씨클

넷째 날: 2022년 1월 26일

주제: 파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Mary Ward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 하느님께 영광을 드
릴 수 있기를!’

Teresa Ball

오늘날 이 세상은 기후 변화, 전쟁, 가난, 부패 혹은 정치 체제의 남용 때문에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는 돈을 적게 지불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생산품을 위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본다. 전 세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육화에 대한 묵상(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삼위께서 모든 면에서 영광스럽고 타락한 인류를 내려다 보시는 모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기원이 신성하고 삼위일체적인 '파견'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상으로 파견되신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는 육화에 대한 메리 워드의 응답을 상상해 본다. 테레사 불이 요크로부터 아일랜드에 수도회를 설립한 다음, 젊은 회원들을 인도, 모리셔스, 지브롤터, 캐나다 및 영국으로 보내면서 '예'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두 여성은 자신이 살던 당대에 무엇을 했는지 만이 아니라 왜,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온 여성들은 특별한 지위나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고통과 불의의 상황 때문에 힘겨워 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파견되길 추구했다. 코비드 19가 초래한 고통과 투쟁으로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파견'에 대한 우리의 '예'를 새롭게 할 때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를 지속시켜 줄 것이다.

메리 워드의 여성인 우리도 삼위일체 안에 머물며, 오늘의 세상 현실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도전을 통해 하느님께 응답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부르짖음이 우리 자신을 건드려서 하게 되는 응답이다.

내가 처한 곳의 사람들이나 상황에 내가 더 많이 투신하도록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Sr Adina Bălan CJ – 라틴 유럽 관구/루마니아

다섯째 날: 2022년 1월 27일

주제: 미션



‘큰 사랑과 내적 자유로 하느님께 봉사하십시오’

Mary Ward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십니다.’

Teresa Ball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다. 미션이란 무엇인가? 바다를 건너 가는 것인가? 뭔가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인가? 24시간 바쁜 것인가?

미션은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션은 존재와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는 것이다. 미션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있는 곳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미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촉매나 효소가 되어 육화하는 것이다. 미션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해석이다. 미션은 남을 위한 자기 비움의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교, 즉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서 사람들의 선교, 즉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선교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숙고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아차리며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미션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이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현명하게 경청하는 자세다. 그러나 판단의 소리는 우리가 창의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차단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우리의 감정이 건드려지며, 다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냉소적인 목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취약성을 상살함으로써 열린 마음을 가둘 수 있다.

셋째,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열린 의지가 필요하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우리가 안전을 포기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우리 의지를 방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미션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의 재능을 어디서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보고 또한 내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다.

나는 미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더 효과적인 미션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나 태도들을 바꿔야 하는가?

Sr Rosaline Ng'ang'a IBVM – 잠비아

여섯째 날: 2022년 1월 28일

주제: 여정의 장애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구세주께서 것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Mary Ward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eresa Ball

우리의 삶과 사명은 항상 모든 종류의 장애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코비드19 팬데믹, 정치적 혼란, 경제 침체, 자연 재해, 전쟁과 분쟁,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장애물은 외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자기 사랑, 자기 의지 및 자기 이익과 같은 다른 것들은 내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다.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든 없든 모든 장애물은 은총의 샘인 카이로스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포용하고, 세상이 이제까지 목격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장애물, 즉 우리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일치할 때 모든 장애물은 은총의 샘이 된다. 우리는 그러한 일치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으로 내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 20)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장애물을, 사랑을 베풀고 삶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 메리 워드와 테레사 불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닌가? 그들의 삶과 시대는 분명히 장미 꽃밭이 아니었다. 종교 전쟁, 전염병, 박해, 불확실성, 개인의 의혹 등 내외적인 장애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 덕분에 그들은 미증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었고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 창립자들의 영감을 받아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 봉헌하며,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장애물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말하십시오. *우리가 온갖 장애물을 만나게 될지라도 결코 괴로워하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주위의 어둠에 쫓기지만 결코 빛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성 바오로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미션에서 개인과 공동체로서 직면하게 되는 내외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장애물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샘인 카이로스 사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Sr Vinita Mazhuvancherry CJ – 네팔

일곱째 날: 2022년 1월 29일

주제: 미지의 것을 포용하기



‘하느님의 사랑은 끌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하
느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다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Mary Ward

‘가서 하느님 사랑의 불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Teresa Ball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랑의 불을 사랑하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느님과 친밀해질수록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영의 놀라움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기가 더 쉽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헌신하면 많은 어려움, 도전, 두려움이 동반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 아니다. 하느님은 가장 작은 창조물도 돌보시며 당신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다.

오늘날 하느님은 우리가 수도회 일원으로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수많은 이민자와

경제적 혼란, 현재 팬데믹과 무관심, 개인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사회에서, 그 당시 메리 워드와 테레사 볼처럼, 우리도 미지의 것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육화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 지역 본당에서 나는 다른 수녀님과 함께 우리 수녀원 인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히 불법체류라는 죄목으로 가장 거부를 많이 당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이런 이유로 불법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교도소에서 보다는 인권을 더 많이 박탈당한 이런 구치소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동체가 가장 궁핍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에 미지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믿음과 희망으로 나아간다.

끝으로 아래 노래 가사가 현재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직 씻어 주어야 할 발이 너무 많고,
아직 비춰줘야 할 어둠이 너무 많으며,
끊어 주어야 할 사슬이 너무 많다.
나는 빵과 포도주가 되고 싶다."

오늘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개인적 혹은 제도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두려움이나 다른 어려움보다 사랑이 더 강해야 한다는 확신에 찬 미래를 나는 마주하고 있는가?

Sr Louise Latin IBVM - 스페인 관구

여덟째 날: 2022년 1월 30일

주제: 함께 미래로



‘모두 여기 있다면 좋겠습니다.’

Mary Ward

‘모든 것 중에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Teresa Ball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메리 워드와 테레사 볼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을 로올라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 다른 지역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다른 도전과 다른 위험을 제기할 것이며 다른 기술을 요할 것이다.

내 생애 동안 나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활동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아일랜드 자선 단체인 Concern에서 활동하면서 회의에서 동정성모회 수녀님들을 여러 사람 만났다. 나는 탄자니아 예수회 난민캠프에서 노엘 수녀님을 처음 만났다. 나는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메리 워드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곳이 마치 내 집처럼 느껴졌고 우리가 하나되는 곳이었다.

'하느님께는 만사에 때가 있다'는 메리 워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될 때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태피스트리가 나올 것인가?

Sr Pat Robb CJ - 영국 관구

1879년 더블린에서 처음 출판된 테레사 볼의 전기에서 저자인 윌리엄 허치 신부님은 테레사 볼에 대해 "그는 [자기수녀들에게] '형제들이 일치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작가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데 지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공동체 생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테레사 수녀님은 라트판햄과의 통합을 철회한 아일랜드와 해외에 세운 다른 수녀원들, 스티븐 그린과 라트판햄 로레토 수녀원의 분리에 대해 마음 아팠을 것이다.

1619년 리에주에서 프락세데스 수녀와 그 지지자들을 시작으로, 메리 워드 수도회 양측에는 항상 일치와 단일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프락세데스 수녀는 자기 수도회를 위해 메리 워드의 현시를 뒤엎으려 했다. 단일화와 관련된 문제는 수세기를 거쳐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 수녀들 중 많은 수가 항상 단일화를 열망하고 이를 위해 일해 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위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 12,1). 즉 **단일화**를 위해.

Sr Magdalen O'Neill IBVM – 영국관구

나는 단일화 과정에 어떤 선물, 어떤 재능,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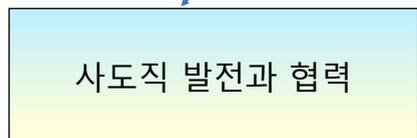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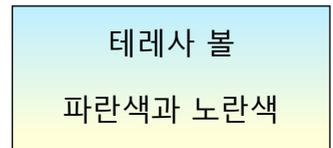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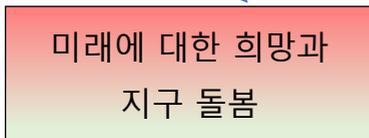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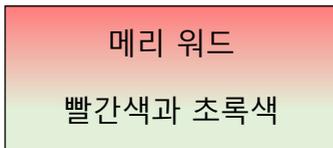
금년 숙고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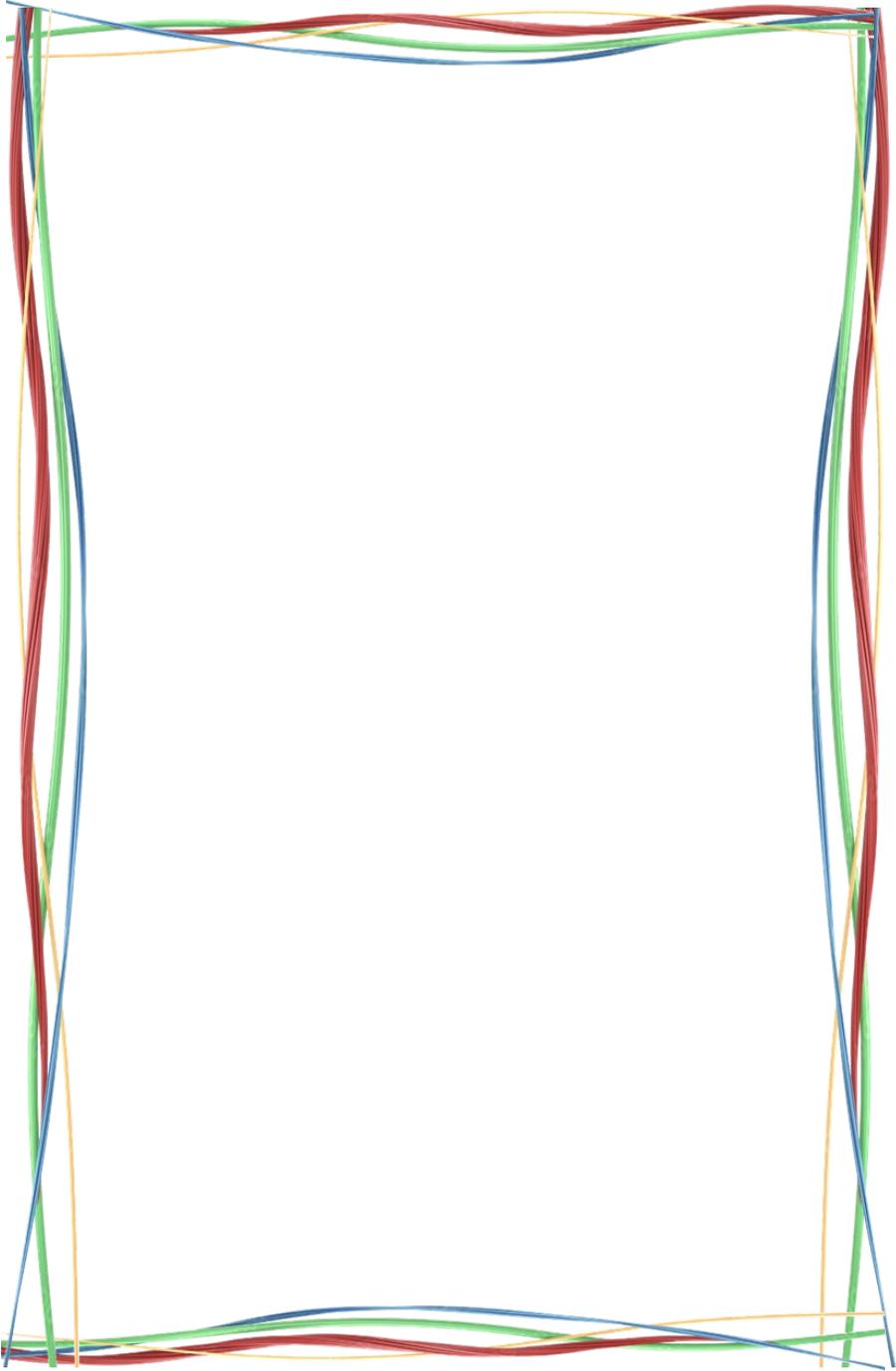
예술적인 표현을 기대합니다.

Anawim 웹사이트에 당신의 예술적 응답을 신기를 원한다면
스캔이나 사진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anawimarts@gmail.com

색깔 키





'다른 어떤 것'



손을 내밀어 그 너머로

